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 관련 협조 요청

1. 항상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발전에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전공의 20여 명이 환자 20만명의 처방기록을 제약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률 >

(의료법 제19조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7조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준수에 관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장,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주무관 이혜리 서기관 이준미 보건의료정책 전결 2021.12.24. 과장 고흥우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310 (2021. 12. 24.)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406 팩스번호 044-202-3924 / heal@korea.kr / 대한민국 공개